

국힘 전대 당원 80%·민심 20% 의결

비대위 회의...당원투표 100% 규정 1년만에 수정

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%와 국민 여론조사 20%를 합산해 자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13일 결정했다.

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'당원투표 70%·여론조사 30%', '당원투표 80%·여론조사 20%' 등 당헌당규특위가 추진 두 가지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.

지난해 3·8 전당대회를 앞두고 만들어진 '당원투표 100%' 규정을 1년여 만에 고쳐 여론조사를 20%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.

여론조사가 다시 반영되기는 했지만, 이는 과거 적용됐던 '당원투표 70%·여론조사 30%'에는 못

미친다.

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경선규정(당원 75%·일반 여론조사 25%)보다도 낮은 수준이다.

이날 회의 중에 김용태 비대위원이 여론조사 비율을 최대 50%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.

김민전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비대위원 다수가 '80%-20%' 안을 선호했다면서 "(민심 비중을 한꺼번에) 크게 움직이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"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.

또 "총선 패배 후 당 개혁이 첫 번째 과제인데 마치 (전대룰에) 당심을 많이 반영한 것이 문제인 것

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"는 생각도 있었다"며 "당심의 중요성, 당원 배가 운동 필요성 등 (8대 2를 선호하는) 이유가 있었다"라고도 덧붙였다.

그는 "여론조사 비율 25%인 민주당과 비교해 혁신 의지가 부족하게 느껴진다"는 취지의 지적에 "민심 반영 비율이 혁신의 바로미터가 되는 게 바람직한다"라며 "국회의장, 원내대표를 뽑는 데도 당원을 반영하겠다는 민주당이 민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어렵지 않냐"라고 반박했다.

변경된 대표 선출 규정을 반영한 당헌·당규 개정안은 오는 19일 상임전국위원회,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·연합뉴스

20% 반영에...한동훈에 쏟아진 견제구

나경원 "원의 대표는 어려워"...윤상현 "또 나올거 왜 사퇴했나"

국민의힘이 13일 단일 지도체계 유지와 함께 대표를 선출할 때 국민여론조사를 일부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비윤(비 윤석열) 성향의 잠재적 당권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견제구를 날렸다.

나경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대 룰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"전장이 국회이다 보니 원외 당 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"라며 한 전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.

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"패배한 당이 아니라 승리한 당의 모습 같다"며 "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분도 그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. 그러면 뭐 하러 사퇴했나"라고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.

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"8 대 2 전당대회 룰은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미흡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"며 "오로지 특정인의 출마, 그리고 제과나 권력 충돌 여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"고

우려했다.

다른 주자들의 견제를 한 몸에 받는 한 전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.

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그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.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나경원-윤상현-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후보 등록일로 검토되는 오는 25일 전후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.

일각에서는 국민 여론조사가 추가되면서 유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해 한 전 위원장과 당권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. 소장파 포인인 '첫목회' 소속 수도권 초선 김재섭 의원의 대표 선거 출마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. /연합뉴스

尹 국정 지지율 29%...2주째 정체

엠베레인퍼블릭 등 여론조사...부정평가 1%p 오른 63%

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째 횡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.

엠베레인퍼블릭-케이스탯리서치·코리아리서치·한국리서치가 지난 10~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대표조사(NBS)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%였다. 2주 전 조사와

같은 수치다.

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가 이뤄진 2주 전보다 1% 포인트(p) 오른 63%로 집계됐다.

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32%로 이전 조사 결과와 같았고,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%포인트 오른 64%로 나타났다.

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9%, 더불어민주당 26%, 조국혁신당 13%, 개혁당 5%, 진보당 1%, '지지 정당 없음·모름·무응답' 23%였다.

2주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모두 1%p씩 떨어졌다. 조국혁신당은 1%p, 개혁당당은 3%p 각각 상승했다.

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(100%)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, 응답률은 16.0%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1%p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. /연합뉴스



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(현지시간)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립 아카데미 칼라백 쿠키너쉬 드라마극장에서 '한-카자흐스탄 문화 공연' 관람에 앞서 카심-조마르트 토크야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'위대한 땅(steppes·스텝)의 황금'이라는 특별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. <사진공동취재단>

"한국기업, 카자흐 국책사업 참여 기대"

尹, 벡테노프 총리와 협력 확대 논의... 카자흐 "韓기업 활동 지원"

카자흐스탄을 국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(현지시간) 울라스 벡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.

윤 대통령은 벡테노프 총리에게 전날 토카심-조마르트 토크야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"앞으로 특히 인프라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길 기대한다"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.

윤 대통령은 이어 "우리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·투자 대상국이자 역대 경제를 이끄는 카자흐스탄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"며 "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책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"고 밝혔다.

윤 대통령은 아울러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이 더욱 강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이 이번 국민 방문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며, 이번에 체결

한 핵심 광물 분야 업무협약(MOU)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바라라고 했다.

윤 대통령은 고려인 동포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, 우리 대표단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환대에도 사의를 표했다.

이에 벡테노프 총리는 "이번 국민 방문이 한-카자흐스탄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킨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"며 "앞으로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협력이 계속 확대·심화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"고 말했다.

벡테노프 총리는 "카자흐스탄의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탐사, 발굴, 제련, 활용 단계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을 한국과 추진하길 희망한다"며 "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약 700개의 한국 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'경제협력 특별위워크숍'을 통해 계속 지원하겠다"고 밝혔다. /연합뉴스

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

1.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

<경매 10개>

Table with columns: 사건번호, 물건번호, 소재지 및 면적, 용도, 감정평가액, 최저매각가격, 비고. Includes sub-sections for [상가/오피스텔, 근린시설], [아파트], [단독주택, 다가구주택], and [기타].

Table with columns: 사건번호, 물건번호, 소재지 및 면적, 용도, 감정평가액, 최저매각가격, 비고. Contains listings for [아파트] and [단독주택, 다가구주택].

Table with columns: 사건번호, 물건번호, 소재지 및 면적, 용도, 감정평가액, 최저매각가격, 비고. Contains listings for [기타].

Table with columns: 사건번호, 물건번호, 소재지 및 면적, 용도, 감정평가액, 최저매각가격, 비고. Contains listings for [대지/임야/전답].

●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● 특별매각조건
① 농지전용 지정지역의 농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...
② 임야의 경우 그 용도가...
2. 매각일: 2024. 6. 28.(금) 10:00
3. 매각결정일: 2024. 7. 5.(일) 14:00
4. 매각장소: 광주지방법원 법원행정처
5. 매각방법
① 매각방법에 비추어 기밀양해를 사면번호, 입찰자, 주선, 입찰액,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제출하며...
6.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
①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...
7. 소유권이전 및 인도
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, 각종 지장권,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...
8. 주의사항
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신풀의 지장권 등이 설정된 바 없더라도...
② 임야의 면적은...
③ 특별매각조건에 비추어...
④ 입찰보증금에 대한...
⑤ 소유권이전...
⑥ 매각대금 납부...
매각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의 법원법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 주소: http://www.courtaction.go.kr